

“대가보다는 끝까지 현역이고 싶다”

회갑기념작품집 「저문날의 삽화」낸 박완서씨

작가 박완서씨의 「저문날의 삽화」(문학과 지성사)는 몇가지 의미에서 상징적이다. 장편 소설을 제외하고 정확히 5년만에 대하는 창작 집이라는 생산이 불려일으키는 새삼스러움이 그 중의 하나이고, 독자로 하여금 쉽사리 분리시킬 수 없도록 만드는, 작가 자신과 ‘저문날’이라는 제목의 상관성도 그러하다.

그동안 결코 다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꾸준한 작품활동이 주는 목적인 존재감 때문에 누구보다도 낮은 작가로 인식돼온 그가 지난 10여년간의 작품들을 이제야 비로소 한권으로 묶어냈다는 사실과, 이 책이 뒤늦게 출발한 작가로서의 20년과 자연인으로서의 회갑을 동시에 맞는 시기에 출간됐다는 점에서, 이미 충분히 주목받고 있는 박완서라는 한 작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한다.

변화와 낮익음 공존하는 최근작 모습

표제작을 비롯해서 발표순서에 따른 14편의 단편들을 통해 흔히 ‘격변기’라 불리는 지난 연대를 지나온 작가의 문학세계를 읽어낼 수 있는 이번 창작집에 대해 한 젊은 평론가는 “변화와 낮익음이 공존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전의 작품들에 비해 커다란 변화가 눈에 띄는 것은 아니지만 시대적 상황에 대한 작가 나름의 성실한 소설적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데뷔작 「나무」에서부터 작년에 완간된 「미망」에 이르는 ‘박완서문학’은 자신의 세대가 체험한 6·25와 그 상흔, 도시 중산층 혹은 도시민의 이기주의와 허위의식, 그리고 여성문제의 세가지 주제로 거칠게나마 구분해볼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근거해서 본다면 「저문날의 삽화」도 이전의 작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한 작품을 쓸 당시의 내 나이를 화자의 나이로 삼은 경우가 많고, 그럴 때가 가장 편안하다”는 작가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번 작품집에서 初老에 접어든 그의 나이가 강하게 느껴지는 까닭은 아무래도 「저문날의 삽화」 연작 때문인 듯 싶다.

인생의 황혼기를 맞은 노부부의 일상을 소재로,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오가는 정과 이들이 가족, 이웃 등 주변환경과 얽혀 만들어내는 이야기들로 구성된 5편의 ‘삽화’는 한편으로 박완서씨 특유의 신랄한 문체로 화자가 속한 계층의 의식과 생활양태에 대한 비판의 시선을 늦추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 정년퇴직한 남편과 ‘밀려난’ 생활을 해야만 하는 아내

“이론에 맞춰 글을 쓴

적은 없습니다.

문학의 공통적인 속성 중의

하나로 저는 그것이 가장 민주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점을 꼽습니다.

자존심이나 행복,

보람 같은 최소한의 인간적 소망이

좌절당하면 안된다는 의미에서

제 작품의 여주인공들이

탄생합니다.”

인 주인공들은 연연중에 강요되는 정서적 위축감과 소외감으로 자신이 느끼는 불만들을 일정부분 체념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도 한다.

작중 화자의 이러한 이중성, 그 나이의 사람들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딜레마를 박완서씨는 “연륜이 가져다준 ‘관조’의 모습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는 작품의 무게중심이 자신을 포함한 현대인들의 내면을 묘사하고 비판하는 데 놓였었다면, 이제는 거기에 삶에 대한 포용력이 더해져 자연스런 주인공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른바 ‘박완서식 표현법’으로 소설쓰기를 ‘거짓말 한다’고 빗대는 경우가 있다. 죽은 남편의 유물인 모자를 매개로 지난날을 회상하는 「여덟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에서도 원고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부인을 보고 “당신 또 거짓말이 막혔나보구려”라며 격려하는 남편이 등장한다. 그의 실제 체험이 짙게 배인 최근작이기도 하지만, 「저문날…」 연작과 함께 전혀 허구로 느껴지지 않는 ‘솔직한 거짓말’로 잔잔한 감동마저 느끼게 한다.

이들 작품에 비해 이 책의 전반부에 실린 「로열 박스」 「霧中」 「소묘」 「초대」 등은 80년대 초의 작품들로 이후의 작품들과는 이질적인 정황을 보여준다. 작가 자신이 “오래전 작품이지만 지금 다시 읽어보면 ‘말재간’이 뛰어났던 것 같다”고 말할 정도로, 이 작품들은 주인공의 심리묘사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가 즐겨 다루는 여느 인물들과는 다른 평균적인 삶에서 얼마간 이탈한 사람들의 내면을 밀도 있게 기술함으로써 작가 박완서의 또다른 감성을 드러내놓고 있는 것이다.



박완서씨.

그러나, 이 한권의 작품집에 뚜렷한 문학적 단층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평단의 증론이다. 앞서 말한대로, ‘박완서다운’ 분위기는 여전한 것이다.

담담하게 묘사된 초로의 일상풍경

개인사적으로 볼 때 그는, 기복이 심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순탄하지만도 않았다. “비참하고 곤궁했던” 6·25 전후의 생활은 비단 그만의 상황은 아니었을지라도 “남보기에 충분히 불행했던 시절”이었다. 결혼을 하고 평범한 주부로 40살을 맞을 때까지는 일정한 ‘보상심리’가 작용하기도 하면서 가족에 몰두한 시기였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남들이 겪는 것만치 불편도 겪고 걱정도 하면서도 나는 내가 노동자편이라는 걸 한번도 의심해본 적이 없었다. 내가 노동자재서가 아니라 억압하는 쪽보다는 억압당하는 쪽을, 가진 자보다는 못 가진자를 편드는 건 내 기본적인 도덕심”(「여덟개의 모자로…」 중)이라는 ‘의식’은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었다.

남다른 습작기를 가졌던 것도 아닌 그가 끝내 늦깎이 작가로 나서게 된 까닭은 바로 이러한 다부진 의식이 결혼 후에까지 이어진 “일상 속의 설명할 수 없는 ‘불행감’이나 언젠가 뭔가 해야 한다는 막연한 예감” 같은 것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 같다는 것이 박완서씨의 말이다.

이 말 속에는 부인하려 해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여성으로서의’ 그간의 삶에서 느낀 문제의식도 적잖이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얼마전 진지하게 펼쳐졌던 ‘박완서는쟁’은 최근의 페미니즘 선풍을 예고하며 그의 문학을

단순한 ‘소설’의 영역 밖으로까지 확대시켜 놓기도 했다. 그러나 여성문제를 다룬 그의 작품들은 무엇보다도 체험에 충실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목적의식 아래 씌어진 것은 아니다.

“이론에 맞춰 글을 쓴 적은 없습니다. 문학의 공통적인 속성 중의 하나로 저는 그것이 가장 민주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점을 꼽습니다. 즉 자존심, 행복, 보람 등 최소한의 인간적인 소망, 정당한 꿈이 좌절당하면 안된다는 의미에서 제 작품의 여주인공들이 탄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작가로서도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 여유로 봐 주길 바라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심란하기만 한” 회갑을 맞은 그는 “쓸쓸하기는 해도 호젓하지만은 않다”고 한다. 같은 아파트 단지의 이웃동에 사는 딸네 식구들을 비롯해서 그를 부산하게 만드는 사람들과 일들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일련의 불행한 가족사를 겪으면서도 대하소설 「미망」을 끝내 완성했던 것처럼, 집필에 전념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문학외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굳이 이 작품을 가장 힘들게 쓴 작품으로 꼽지 않는 것처럼, 그는 가장 평범한 일상인의 면모를 보여주면서도 그로부터 가장 철저히 문학을 분리시키는 냉정함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가 쉽사리 늙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대가가 되겠다는 생각은 없고 죽는날까지 현역이었으면 좋겠다”는 말보다는 “아직 하나도 포기한 것이 없다”는 그의 ‘욕망’에 있는 듯싶다.

— 정소연 기자